

작가와 만남·손글씨 공예... 공공도서관 즐길거리도 넘쳐요

■ 0%.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독서 프로그램 참여율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놓은 '2015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다. 광주 시민들에게 공공 도서관은 참 멀다. 10명 중 2명(20.8%)만 공공도서관을 찾는다.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꼴찌다.

전남 지역민들의 공공도서관 이용률은 12.5%. 전국 평균(28.2%)은 커녕, 16개 시·도 중 가장 낮다. 도서관을 찾지 않으니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관심도 없다. 그렇다고 광주·전남교육청 산하 도서관이 무작정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 올해도 지역민들의 발길을 붙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니들이하기 좋은 계절, 이곳저곳 봄꽃을 찾아 다니다 광주·전남 도서관을 둘러보는 건 어떨까. 책을 읽는 기회로 도서관을 찾는 것도 좋을만하다.

내달 12~18일 도서관 주간

작가 강연·선물 증정 다채

◇책 읽는 즐거움, 도서관에서 배운다
=광주중앙도서관은 어린이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을 알려주자는 취지에서 책 읽어주기, 독서퀴즈, 일일 도서관교실 등을 마련해 운영한다. 여럿을 때부터 책과 친숙하게 하는 습관을 길러 '도서관 이용의 생활화'를 유도하자는 취지다.

상반기 '책 읽어주기'는 4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매주 토요일, 미취학 어린이부터 초등 1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좋은 책 읽어주기'는 5세에서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중앙도서관 석봉분관에서는 '토요일에 만나요'를 주제로 초등학생을 위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매주 토요일마다 2시간씩 '영화 따라 강강술래', '무력무력! 고전잡무', '살아있는 한국사' 등을 주제로 6월까지 운영한다. 학생교육문화회관도 책 읽는 즐거움을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남나, 책먹는 아이들' 프로그램을 마련, 7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한다.

금호평생교육관도 '토요일은 북데이트', '쑥쑥! 생각을 키우는 인문고전 읽기',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역사 속으로' 등의 독서프로그램을 매주 토요일 운영한다.

◇'다독다독(多讀多讀), 꿈을 응원해주는 도서관' =광주·전남 도서관들은 다음달 '도서관 주간'(4월 12일~18일) 진행할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역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장성공공도서관은 그림책 '박각시와 주라시' 원화 전시, 힌트를 읽고 해당 책을 찾아 숨겨져 있는 보물 쪽지를 찾는 '책 속에서 보물찾기', 인상 깊은 문장이나 글귀를 적는 '공간 한 문장! 책나무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과 '송내관'이라는 필명으로 알려진 송용진 작가 초청 강연(12일) 등 11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목포공공도서관은 도서관 주간, 도서관

■ 광주·전남 주요 도서관 프로그램

도서관명	프로그램
화순도서관 (4월 15일)	다독다독 만들기
담양도서관 (4월 15일)	그림책 보고 쿠키 만들기
해남도서관 (4월 15일)	일일장터서 세월호 추모엽서 만들기
광주중앙도서관 (4월 1일~7월 15일)	좋은 책 읽어주기 (매주 토요일)
금호평생교육관 (매주 토요일)	'우리 역사 속으로'

을 찾아 행운권이 숨겨진 책을 대출하는 이용자 30명을 대상으로 작은 화분을 선물로 준다. 또 협동의 필요성과 독서의 중요성을 담은 인형극 '파이도독을 막아라' 공연을 비롯, 도서관을 찾아 서평을 쓴 이용자들에게 선착순으로 책갈피를 주는 행사도 마련했다.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자격증 시험 등에 합격했던 경험담을 공모받아 인상적인 경험담을 뽑아 문화상품권을 주는 '나의 도서관 이야기'도 진행한다.

나주공공도서관의 경우 서점덕 교수를 초청, '세계를 향한 무한도전'을 주제로 강연회(18일)를 연다. 참가자 10명을 선정, 서 교수의 책을 선물로 준다. 다음달 4일부터 선착순으로 강연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도서관 이용의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한 인형극 '수탉이 왜이래' 공연(12일)도 마련했다.

화순공공도서관은 '세계 책의 날'로 행사를 짓고 우수작을 뽑아 상품을 주고 봄과 관련있는 책을 읽고 다독다독을 만들어보는 행사(15일)를 계획했다. 영암공공도서관도 '도서관이 살아있다'라는 이름의 5월식 짓기 행사를 연다. 담양공공도서관에서는 그림책을 보고 쿠키로 표현하는 '쿠키 클레이'(15일), '시인동주'의 안소영 작가 초청강연(13일), 조대영 영화칼럼니스트의 영화 인문학 산책(20일) 등을 진행한다. 보성공공도서관의 '책이 꿈지락 꿈지락'의 김성범 작가 초청강연(13일),

'소피가 하나면 정말 하나면' 원화 전시회 등도 눈길을 끈다.

고흥평생교육관은 도서관 방문객 100명을 대상으로 캘리그래프를 이용, 좋아하는 문구로 손거울을 만드는 행사(15일)를 마련했다. 진도공공도서관은 그림책 동아리 회원들이 그림책을 읽어주는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해남공공도서관은 '아(後)무진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지역민들과 인문학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연극의 세계, 휴먼 라이브러리 연극'의 이수영 작가가 강사로 나서 '연극으로 만난 인문학:당신은 삶의 주인공입니까?'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세월호 3주기를 앞둔 15일에는 지역민이 만드는 일일장터인 '모실장'에서 지역민들과 세월호 추모엽서 만들기(15일)가 열린다.

◇한 도서관 한 책 읽기도=광주·전남 도서관은 연중 지역민들을 도서관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 추진중이다. 대표적인 게 '한 도서관 한 책 읽기'다. 좋은 책을 함께 읽으면서 소통하는 토론 문화를 조성하고 '독서 생활화' 분위기도 조성하자는 취지로 계획했다.

나주공공도서관의 경우 다음달부터 '과거와 현재의 대화, 역사'를 주제로 '한 책 읽기 캠페인'에 들어간다. 나주도서관은 이달 말까지 '한 책'을 선정하고 작가 초청강연, '내 마음속에 들어온 한문장' 쓰기 행사 행사를 계획중이다.

장성공공도서관은 최근 지역민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투표를 실시한 결과, 김경선 작가의 '브랜드 썰전'을 올해의 한 책으로 선정했다. 브랜드 점퍼를 놓고 벌이는 아빠와 아들의 논쟁을 다룬 책으로, '브랜드'라는 개념을 매개로 세대간 소통과 공감대를 끌어내는 과정이 흥미롭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도서관은 '생각의 옷을 입히자'는 제목의 독서프레젠테이션, 작가와의 만남, 독서퍼즐 등의 관련 행사를 검토중이다.

목포도서관도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참가할 수 있도록 '901호 땀땀 아저씨', '82년생 김지영', '국가란 무엇인가' 등을 한 책으로 선정 후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누는 '한 책 릴레이'도 연중 진행한다.

나주공공도서관은 혁신도시로 이주한 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 눈길을 끈다.

나주도서관은 분기별로 초청 강연·공연 등을 진행하는 '독록! 독사골 도서관 산책' 프로그램과 이진기관 직원·가족들이 야간,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마련, 운영기로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장성 진원동초교 학부모가 27일 '책 읽어주기 교실'에 참가해 어린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다.

〈진원동초교 제공〉

“오늘은 엄마가 학교 가서 책 읽어줄게”

장성 진원동초교 독서 교실

장성 진원동초교의 경우 아이들의 책 읽어주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학부모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케이스다. 진원동초교 학부모들은 매주 월요일 오전 학교를 찾아 유치원부터 3학년 교실에서 책 읽어주기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학부모 8명이 4명씩 짝을 이뤄 올 해 첫 '책 읽어주기'는 27일 오전 열렸다. 학

부모 4명은 유치원(14명) 1학년(15명), 2학년(16명), 3학년(14명) 교실에서 '하나라도 백 개인 사과', '강철 이빨', '똥땀', '부르노를 위한 책' 등을 다양한 목소리로 들려줬다.

진원동초교 엄마들의 책 읽어주기는 5년 전부터 꾸준히 이뤄져왔다. 어린 학생들과 놀이하듯 재미있게 읽다보면 아이들 스스로 책에 재미를 붙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학교측 설명이다.

또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면 학업 능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측이 '책 읽어주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유다. 진원동초교 관계자는 “아이들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책을 읽어주는 엄마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엄마 목소리를 가장 좋아하는 아이들이 책과 쉽게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책에 손이 가는 서점 인테리어

유럽 서점 방문기 '우연히...'

도서관을 즐겨 찾다보면 책을 접하는 기회도 많아지면서 독서를 향상으로 이어진다.

서점도 비슷하다. 독창적 인테리어로 눈길을 끄는 서점이라면 일부러 가보게 되고 책 한 권이라도 집어들고 나오지 않을 까.

'우연히, 서점'은 독일·영국·네덜란드 등 유럽 유명 서점을 둘러본 기록이다. 김인호 바다출판사 대표, 이은혜 글항아리 편집장, 정은숙 마음산책대표, 김충민 북스피어 대표가 제작에 참여했다.

독일 마이어세 도르스트 서점, 벨기에 트로피슴 서점, 영국의 포일스 서점, 위터스톤스 서점, 네덜란드 셀렉시즈 도미니카년 서점 등 개성 넘치는 서점 사진을 엮을 수 있다. 다만, 비매물로 딱 10부만 한정 제작된 만큼 책을 접하기는 쉽지 않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독일 필른 마이어세 도르스트 서점



네덜란드 셀렉시즈 도미니카년 서점



벨기에 브뤼셀 트로피슴 서점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불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불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불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24시간 OPEN!!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빼는날 화, 목, 토, 일
- ▶ 불빼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 ▶ 연가금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참숯구이
돼지갈비
(눈,비오는날 9,900원)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